

# 善山鳳漢二洞出土 金銅如來·菩薩立像發見始末

姜 仁 求

序

善山郡高牙面鳳漢二洞山六九番地에서 發見된 金銅如來·菩薩立像三點은

① 金銅如來立像(四〇·三cm)

② 金銅觀音菩薩立像(三二cm)

③ 金銅觀音菩薩立像(三三·四cm)인데 이 佛像言의 發見 調査에 關한 日誌를 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一九七六年 三月 八日 下午二時頃 發見

一九七六年 三月 一〇日 慶北道當局에서 公開發表

一九七六年 三月 一日 國立慶州博物館接受

一九七六年 三月 一日 第一次 現地出張 發見地 및 元出土地를 探索

하였으나 未確認

一九七六年 三月 二日 國立中央博物館에 輸送

一九七六年 三月 三日 文化財管理局埋藏文化財評價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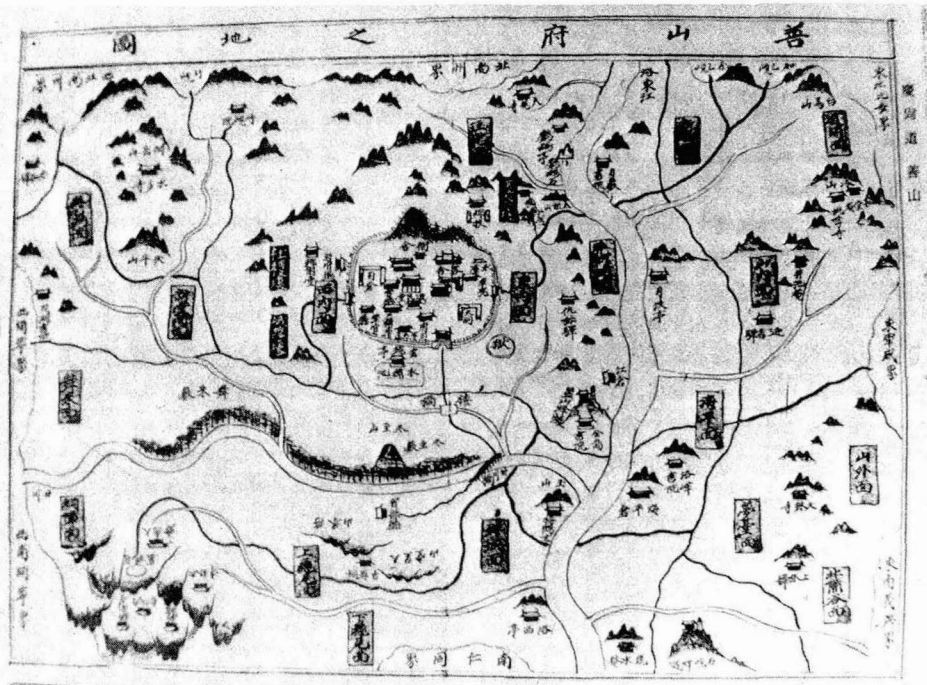
一九七六年 三月 一四日 第二次 現地出張 發見地 再調査 및 元出土地

確認調査

一九七六年 四月 二三日 文化財委員會에서 三點을 各各 國寶로 指定

하기로 議決함

以上에 對하여 그 始末을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善山府之地圖 上 P 450 下 地圖書

### 發見經緯

一九七六年三月一〇日 某新聞 地方版에 一段 記事로 희미한 寫眞과 함께 羅代佛像三點이 慶北 善山郡에서 發見되어 慶北道文化公報室에 申告되고 이어 國立慶州博物館에 鑑定依頼하였다는 報道가 있었다. 翌日 三月一日 正午頃에 慶北道文化係長과 善山郡文化公報室擔當職員이 持參하여 慶州博物館에 引繼하였다. 筆者<sup>①</sup>는 佛像三點을 對하는 瞬間 寺의 完壁한 保存狀態와 雕刻이 너무나 優秀한 點과 보기 드문 大形金銅佛이란 點에서 驚愕을 禁치 못 하였다. 곧 發見地를 調査하여 餘他 共伴遺物의 收拾과 出土地의 遺蹟 性格을 究明할 必要를 느끼고 國立中央博物館長에게 報告하였다. 그리고 곧 李容權(慶州史蹟管理事務所長) 金東賢(文化財管理局慶州古蹟發掘調查團長)에게 連絡하여 함께 現地에 出場하였다.

佛像이 發見된 慶尙北道 善山郡 高牙面 鳳漢二洞<sup>②</sup>의 現地에 到着하여 鳳漢二洞洞長 尹鉉培(五〇歲)의 案内로 發見地에 가서 當時에 發見한 사람들을 찾아 當時의 狀況을 들었다.

佛像은 七六年 三月八日 下午二時頃 鳳漢二洞山六九番地에서 砂防工事를 하다가 工事人 夫인 金三福(七一歲 高牙面禮江一洞 勞動)氏、金月錫(七二歲 高牙面鳳漢一洞 勞動)氏、金容岩(高牙面鳳漢二洞 農業)氏에 依하여 發見되었다. 砂防工事는 너무나 풀이 없는 곳을 階段式으로 깎아 내리고 잔디를 입히는 일인데 發見地點에는 소나무 밑둥치가 박혀 있어 階段造成에 防害가 되므로 이를 뽑아내자 그 바로 옆에 주먹돌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는데 마침 發見者인 金三福老人이 곡괱이로 이 돌들을 헤치니 누운 金빛의 佛像이 곡괱이 끝에 걸려 올라왔는데 이것이 座臺가 있는 金銅觀音菩薩立像이었다. 그 다음 그 아래階段에서 일하던 金容岩氏가 뛰어 올라와 다시 돌들을 파헤치니 金銅如來立像이나 오고 다시 金三福老人 옆에서 일하던 金月錫老人이 모여서 人夫들을 밀치고 그 자리를 헤집자 또 金銅觀音菩薩立像이 이어 나타났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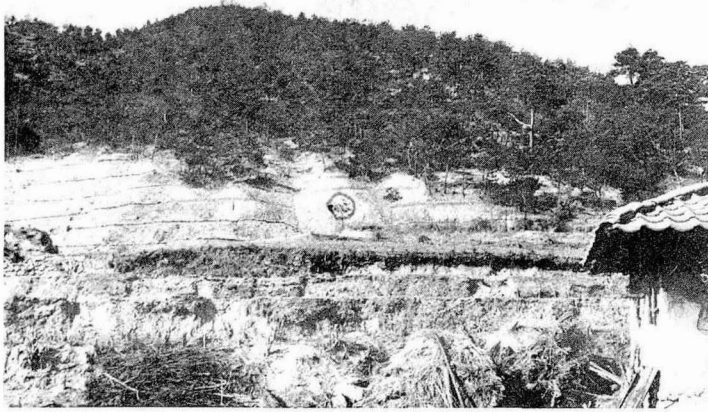
나 이때는 이미 人夫들과 洞民들 數十人이 모여 혼잡을 이루고 다시 그 자리를 파헤치느라고 야단법석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틈에 두 觀音像에는 손끝과 帶下의 瓔珞線이 破缺되어 나갔으나 그것을 알면서도 찾지 못 하였다고 한다. 이事實은 나이가 젊은 金容岩氏가 仔細히 記憶하고 있었다. 筆者等이 發見地點을 두번째 찾은 것은 이때에 破缺된 七〇cm의 瓔珞線과 淨瓶을 혹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現場은 바로 양측에 三m 깊이로 난 골을 메우기 위하여 發見地點에서 削土된 흙을 치운 뒤이었기 때문에 目的을 達하지 못하고 다만 洞長에게 砂防工事當局과 協議하여 人夫二三人을 동원 部分의 흙을 한 삽씩 떠서 精査하여 줄것을 付託하고 元出土地로 向하였다.

發見地點의 土質은 아주 보송보송한 磨砂土인데 佛像의 洞空에 남은 痕蹟으로 보아 故 尹源璧(元出土地에서 發見者)氏 婦人이 密藏할 때 버짐에 쌓아 넣은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土質關係로 鍍金이나 心銅이 하나도 傷하지 않은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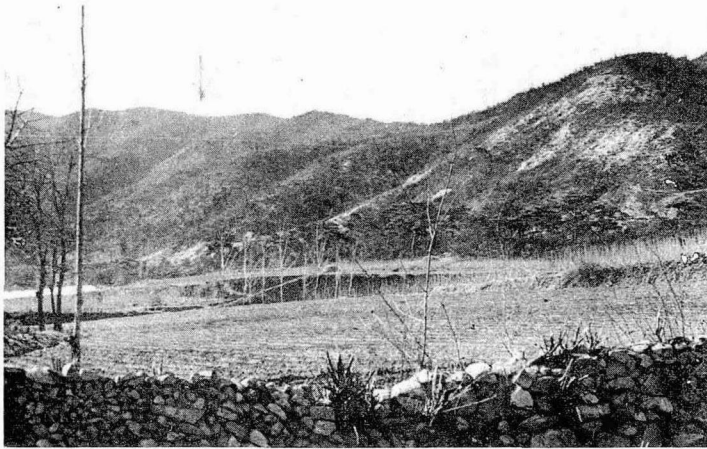
二次調査는 一九七六年 三月一四日에 行하였는데 筆者外에 李容權 禹炳益 咸鍾赫(新羅文化同人會會員)가 參加하고 現地에서 尹鉉培洞長 禹享坤(善山郡廳)와 鳳漢二洞의 새마을指導者가 따로 參加하였는데 發見當時 破缺된 菩薩像의 瓔珞線과 淨瓶의 收拾 및 元出土地調査에 目標을 두었다. 仔細한 것은 後述하겠다.

### 由來와 傳說

佛像이 發見된 地點은 佛像과 關聯있는 遺蹟地가 아님은 一見해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洞長과 洞里의 元老인 尹源達(七三歲)氏를 찾아 由來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七〇餘年前에 故 尹源璧(當時 七三歲로 死亡)氏가 洞里에서 二·五km 떨어진 「대밭골」에 나무하러 갔다가 佛像三點을 拾得하여 집에 保管하던중 病發하여 눕게 되자 그의 婦人이 어느 巫堂에게 問議한즉 집에 새 物件이 들어왔는데 그로 因하여 탈이 났으니 그 物件을 찾아서 갔다 버리면 病이 完快된다고



佛像發見地(砂防工事場)



佛像元出土地로 推測되는 곳 (五~六基의 墓가 있다.)



佛像元出土地로 推測되는 곳 文氏家의 墓가 있음.

하므로 婦人이 몰래 치마폭에 싸서 뒷동산에 埋藏하였다 고 한다. 其後 佛像을 뒷동산에 埋藏하였다 는 事實만 洞里에 알려지고 그 場所는 밝혀 지지 않은 채 尹氏와 그 婦人이 곧 死亡하였다 한다. 이로부터 洞民들 은 一九一〇年代 부터 佛像을 찾으려는 努力을 繼續하여 왔고 特히 三〇餘年前에는 多數 洞民들이 動員되어 뒷산을 뒤졌으나 失敗하고 다시 一九七一年 上水道場設置工事時에도 佛像을 찾자는 論議가 일어서 만약 佛像을 찾으면 그 金額의 半은 찾은 사람이 차지하고 남은 半은 洞의 公共事業에 投資하기로 약속까지 하였으나 끝내 못 찾다가 今番에 偶然

히 砂防工事場에서 發見하게 되었다 한다. 佛像을 元出土地에서 찾은 故 尹源璧氏의 이름은 現洞民들은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絶孫되어 그의 外孫子인 柳快文(七八歲)가 外孫奉祠하고 있다고 한다. 唯一하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尹源達氏인데 그도 族譜를 보고 비로서 記憶해 낼 程度이었으며 故 尹氏와는 二〇餘寸의 族內間이라고 한다. 또 尹源達氏에 依하면 洞里에는 다음과 같은 傳說이 있다고 한다. 即 「대밭골」元寺址에는 二개의 寶物이 있었는데 하나는 鳳漢洞에 묻고 하나는 禮江洞(元出土地)의 바로 위 稜線(北便)에 묻혔는데 今番 發見된 것

은 鳳漢洞의 것이며 이 傳說에 따라 요즘도 禮江洞의 것을 찾을려는 勞力을 繼續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一〇餘年前 까지만 해도 「대밭골」 위 산에서 砂防工事時 많은 瓦片이 出土되어 있었다고 한다.

### 發見地의 位置와 地形

鳳漢二洞은 龜尾에서 善山에 이르는 國道로 (北쪽으로) 一二km 가 먼 鳳漢川과 直交하게 되고 그곳에서 西쪽으로 川邊을 따라 올라 가



冶隱 吉再祠址. 築臺일은 연못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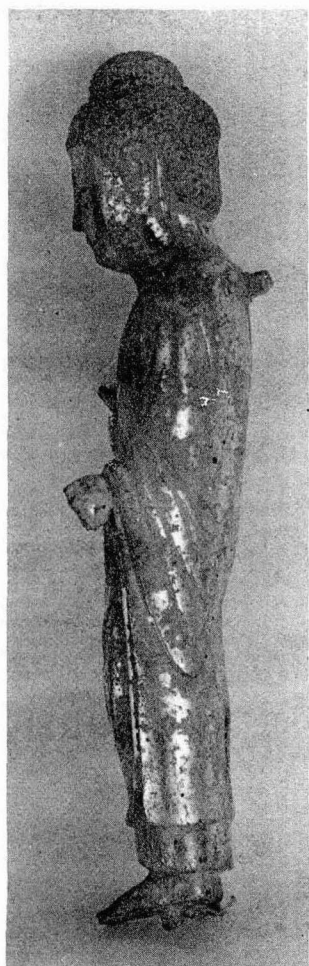
면 곧 南溪國民學校 가 나타나고 그곳을 지나서 四〇〇m 距離에 鳳漢二洞 事務所에 到達한다. 佛像發見地點은 洞事務所에서 다시 西北쪽으로 五〇〇餘 m 距離인데 마을의 뒷산인 鳳凰山의 南麓으로 산과 耕作地와의 거의 境界地點이며 洞里的 上水道場에서 山쪽으로 一〇餘m 距離에 位置한다. 그런데 이 鳳凰山은 接聖山(海拔 三七五·一m)의 東支脈에 該當되며 이곳에서 二·五km 東

北쪽에 洛東江本流가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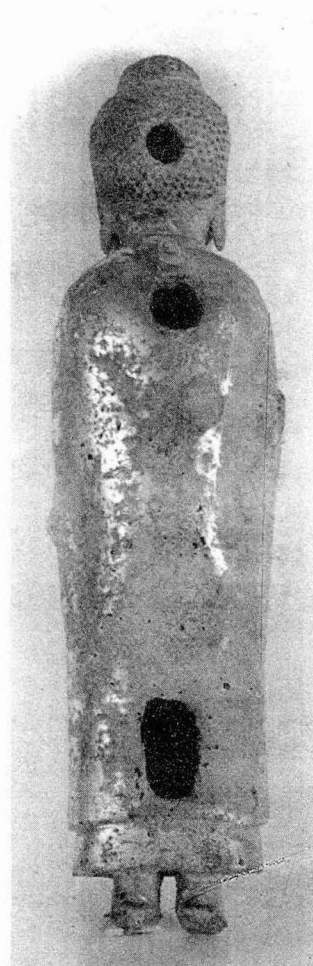
그리고 發見地點에서 西北쪽 「큰골」로 約 1km 올라 가면 道路와 右接해서 約 一,〇〇〇餘坪의 臺地가 있는데 그곳에는 길이 四〇m 높이 二m가량의 自然石築臺가 있고 一〇〇餘坪의 方形池가 있다. 洞里에서 이곳을 高麗末 冶隱吉再先生의 胎地라고 傳하는데 實際로 胎地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 「善山邑誌」 「善山誌」④ 等書에는 冶隱의 祠堂이 있었던 곳으로 記錄되어 있다. 「輿地圖書」에 依하면 吉再祠는 李朝肅宗 三三年 丁亥年(一七〇七A·D)에 當時慶尙道觀察使인 南在가 建立하였고 肅宗의 御筆御製詩에 「歸臥烏山下 清風比子陵聖主成其美勸人節義興」가 있다.⑤ 그리고 이곳에서는 實際로 麗末鮮初에 該當하는 투박한 瓦片이 多數散見된다.

그리고 「큰골」과 「선박골」 「대밭골」을 畵擁하는 山은 地圖에 依하면 海拔 三七五·一m 높이의 接聖山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前記의 「輿地勝覽」과 「輿地圖書」 「邑誌」 等에는 大皇堂山으로 金烏山의 北麓으로 또 山頂에 烽火臺가 있다고 記錄되어 있다. 史書의 大皇堂山下에 接聖山인것은 틀림 없는 事實인데 위의 史書等에 다같이 大皇堂山下에 接聖寺가 있으나 今廢⑥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現在의 接聖山의 名稱은 接聖寺로 因하여 붙여진 이름인지 또는 接聖山의 이름으로 因하여 接聖寺名이 붙여졌는지 確言하기는 어려우나 寺名에 따라 現山名이 생긴 것으로 推測된다. 그리고 「輿地圖書」의 寺刹條에는 「接」字가 「接」으로 되어 있다.⑦ 尹源達氏의 말에 따라 「대밭골」을 타고 올라 가면 頂上에 가까운 곳에 약간 傾斜진 平地에 墓四(五基와 그 越便에 亦是 墓二基가 있다. 이곳에서 三國時代의 오래된 瓦片과 土器片들이 多數 散見되는데 尹氏의 一〇餘年前에 瓦片이 多數 보인다」는 말과 實際로 附合된다.

이곳이 史書에 보이는 「接聖寺」로 推定되는 곳으로 平地가 約 五〇〇坪 가량되며 其外地는 六〇도 以上の 急傾斜地이고 細谷이 많아서 이곳 外에는 寺址가 될만한 곳이 없다. 萬一 寺址가 아니라면 이 깊은 山谷 高處에서 三國時代의 오랜 瓦·土器片이 多數 나오겠는가? 「대밭골」上谷



金銅如來立像(左右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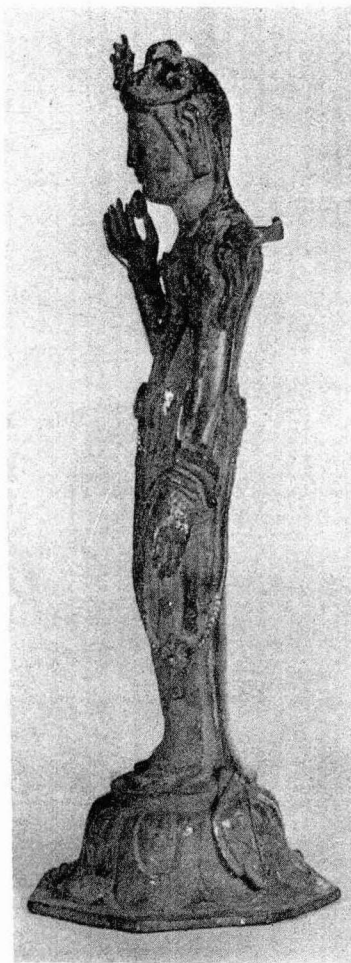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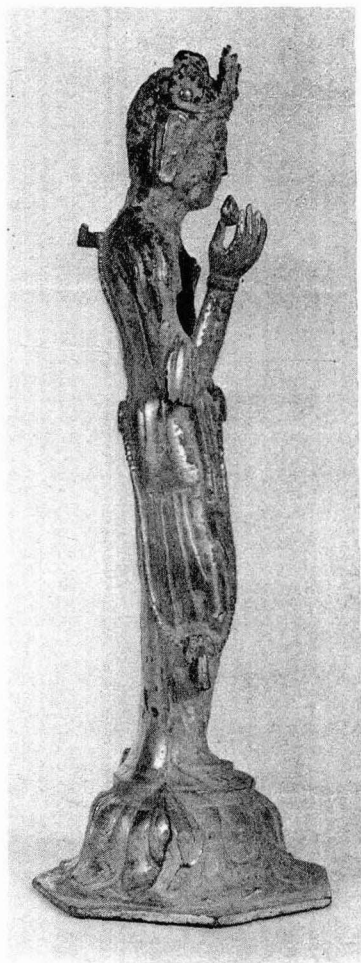
金銅如來立像(正, 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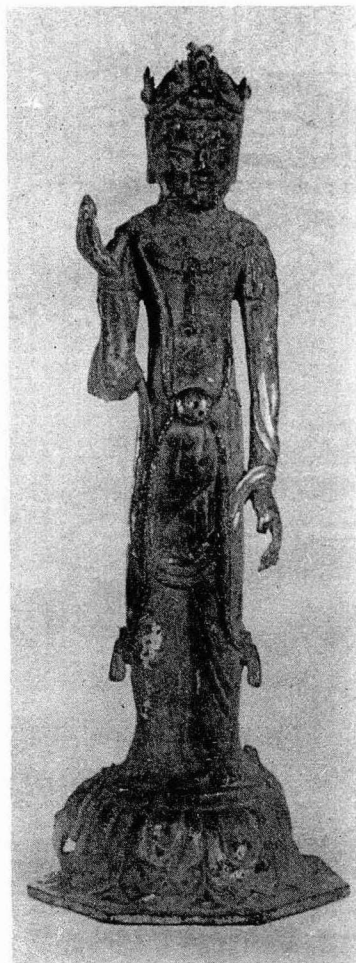
金銅觀音菩薩立像(左, 右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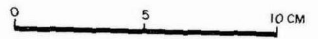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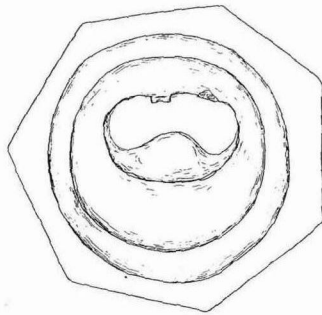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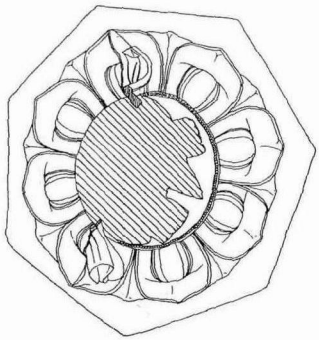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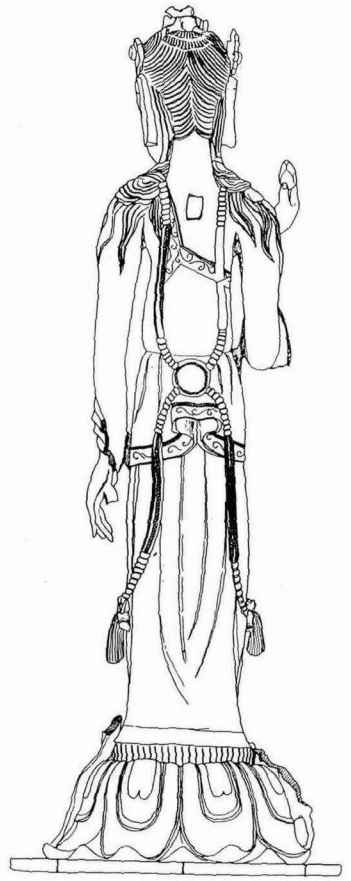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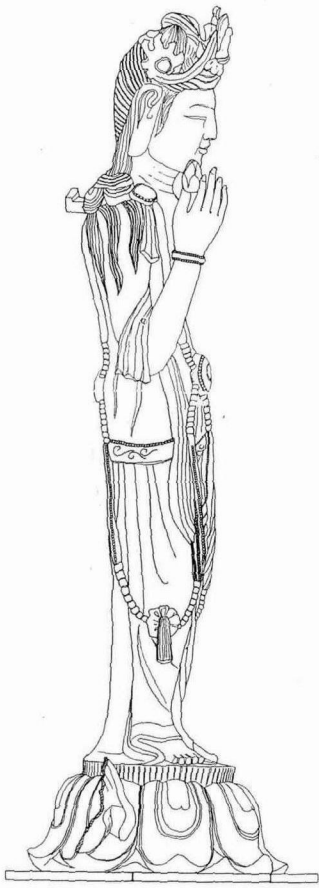
金銅觀音菩薩立像(正, 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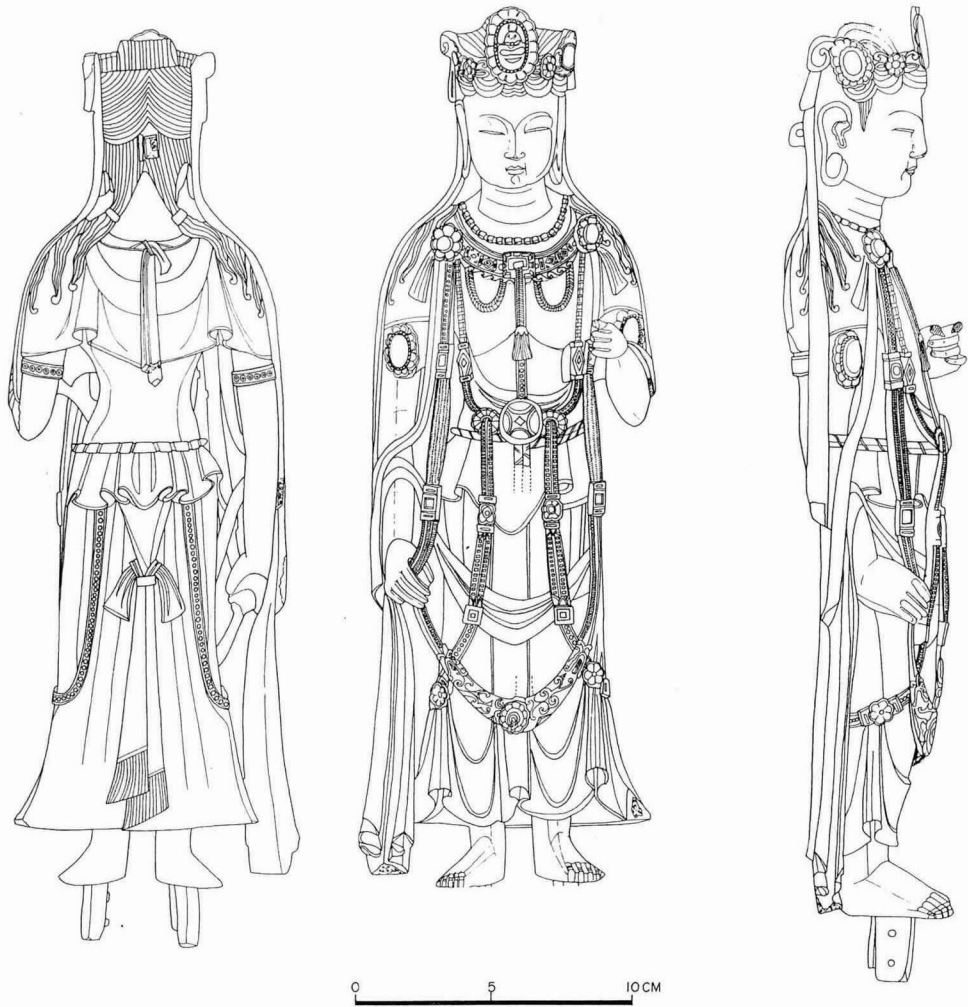
金銅觀音菩薩立像(附座臺)(左右側面)



金銅觀音菩薩立像(附座臺)(正, 背面)



金銅觀音菩薩立像



金銅觀音菩薩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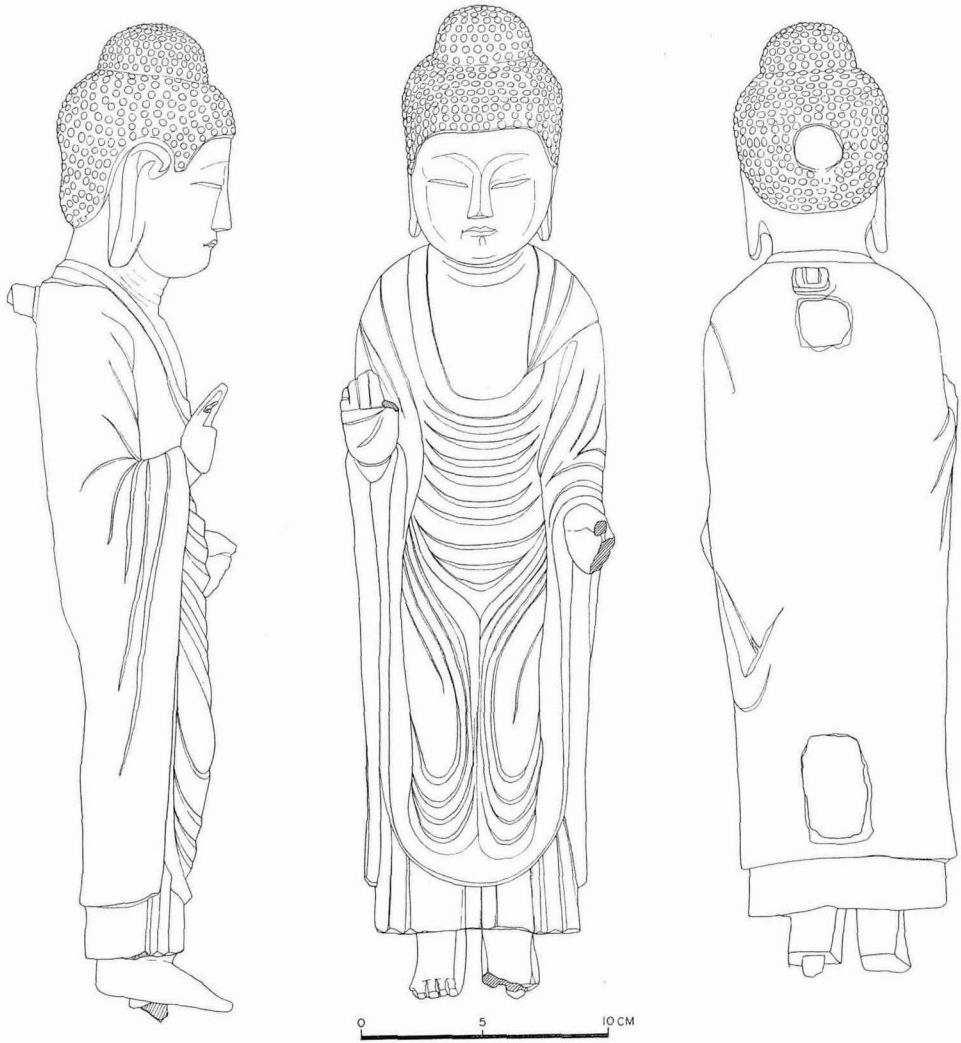
谷의 西便은 稜線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도 亦是 瓦片과 土器片이 있고 龜尾邑 文敬親氏의 曾祖母墓가 있고 谷의 東便은 前述의 約五〇〇坪의 약간 傾斜된 坪地에 墓四~五基가 있는데 이들 墓前에 設置된 床石의 記銘에 의하면 姜仲善墓 錫浩婦人墓와 또 다른 二基의 墓가 있다. 이 東西便이 元來는 通平地이었던 것이 砂汰로 細谷이 生기고 갈라지고 이때에 表土가 埋沒된 것으로 보이는데 現在 散見되는 瓦片들은 墓造營時 引出된 것들이 아닌가 推測된다.

佛像과 瓦·土器片

佛像은 如來三尊像의 格式을 갖춘 것처럼 보여지는데 一見해서 製作手法과 年代 크기가 各已 달라서 本來 同時作에 依한 三尊이 아니고 相當時間을 經過하면서 따로 따로 모아 具色을 갖추어 三尊으로 活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三點 모두 鍍金狀態와 心銅이 거의 完全하여 아직 까지 出土된 다른 어느佛像 보다 狀態가 良好하다.

金銅如來立像은 一菩薩像 보다 越等이 規模가 큰데 肉髻는 크고 鬘鬘하며 螺髮은 比較的 작다 얼굴은 圓滿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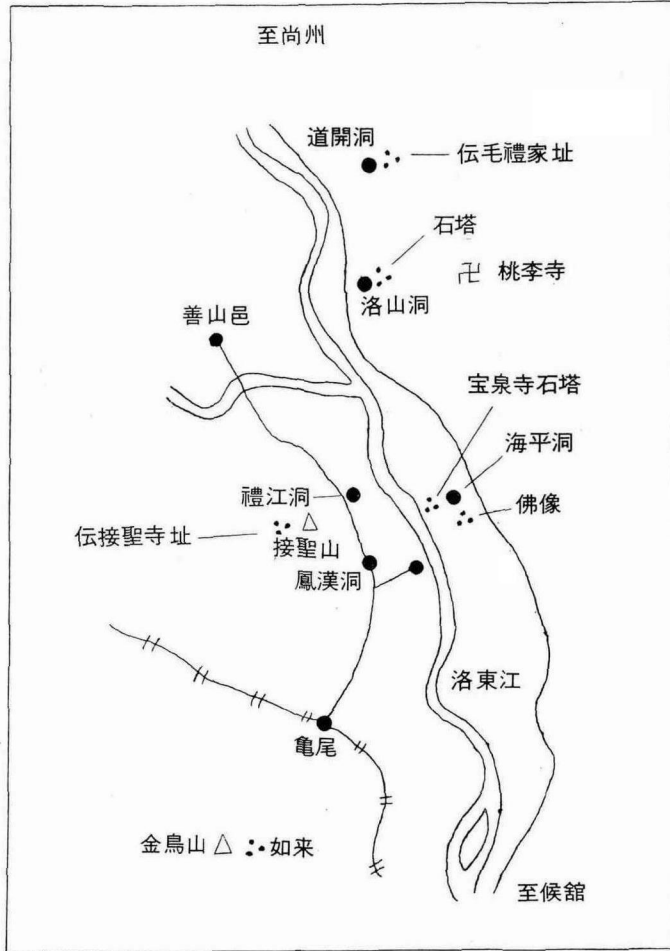
金銅如來立像實測圖

습이며 목에는 三道가 歷然하다. 印相은 外掌하고 양어깨엔 通肩衣를 걸쳐서 발목까지 내려 오게 하였는데 옷주름은 銳利하게 나타내었다. 허리는 잘숙하고 兩肢가 圓狀을 이루어 隋圓形으로 이루어 나간 옷주름과 함께 統一新羅時代 흔히 보는 生動의 모습을 寫實的으로 表出하였다. 座臺는 缺失되고 左足에는 족이 하나 남아 있어서 座臺를 따로 만들어 꽂았던 것임을 보여 준다.

左便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金銅 觀音菩薩立像(座臺)은 높은 座臺 위에 正立한 像인데 花冠을 쓰고 있으며 正面에 化佛一座를 갖추었다. 相互는 길고 근엄한 表情이나 아직도 古拙한 모습을 갖고 있는 三國時代 末期의 樣式을 하고 있다. 바른손은 들어 올려서 작은 蓮봉을 가볍게 들고 왼손은 내려서 持物形狀을 하고 있으나 現在 持物은 없다. 몸에는 얇은 天衣를 걸치고 앞면 가슴 부분과 腹部에 X字形으로 交替하는 瓔珞帶를 느리고 배 부분에 圓形의 花文裝飾을 써서 連結시켰는데 이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양 어깨와 다리 양측에 蓮花文裝飾을 달고 있다. 座臺는 七角形이며 그위에 二重의 蓮瓣을 彫刻하였다. 뒷면에도 앞면과 같이 瓔珞帶와 花形裝飾이 있고 옷주름도 앞면

과 같이 精誠것 表現하였다. 이 像은 모든 部分이 거의 完全한데 担只 花冠의 左側飾 양 팔 아래에서 座臺까지 늘인 옷자락이 破缺되었는데 오래 전에 입은 傷處로 보이며 머리 뒷면에는 頭光을 걸었던 고리가 약간 破損된 채 남아 있다.

金銅觀音菩薩立像은 前記 座臺附佛과 같이 花冠을 쓰고 있고 正面에 隋圓形 二重聯珠文帶를 돌리고 그 안에 化佛一座를 갖추었다. 얼굴은 약간 길게 謹嚴한 表情을 하고 있어서 通常 隋佛의 모습을 하고 목에는 三道를 하고 길게 하여 치켜든 얼굴과 함께 이 佛像을 더욱 堂堂하게 하며 璎珞과 衣文을 前菩薩像보다 纖細하게 하였다. 뒷면에도 같은 手法



善山郡內 佛蹟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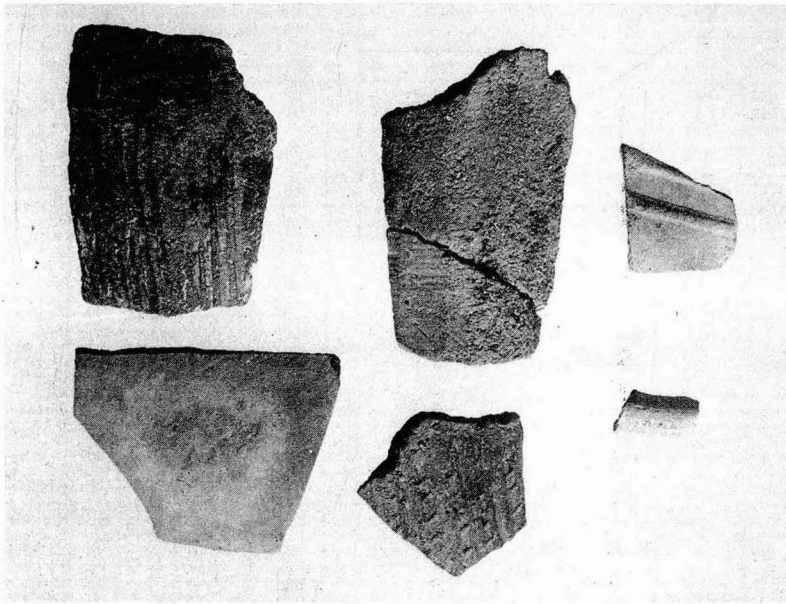
으로 複雜한 衣文을 彫刻하였다. 前後面에 다 같이 璎珞帶를 드리웠는데 前面은 X字形으로 하고 다시 양 어깨에서 한줄씩 또 하나의 璎珞帶를 늘어 뜨렸고 이들 帶에는 複部에 花文裝飾이 있고 어깨에 二, 아래에 四, 옆에 二이 있고 또 方形 三重文裝飾이 四개 있다. 그리고 下部 脚部分에는 龍頭裝飾으로 물림하였는데 他例가 없는 特異한 樣式으로 생각된다. 座臺는 없으나 양발 바닥에 높고 바른 柱狀의 축이 完全하게 남아 있어서 座臺에 꽃잎은 痕蹟을 分明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像의 右手는 내려 드러서 璎珞帶를 가볍게 잡게 하고 左위로 半切하여 持物形을 하였는데 아마도 淨瓶을 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있었다면 손가락과 함께 今番 發見時 損傷된 것이다. 그리고 左側팔에서 부터 足部까지 내려진 옷주름이 오래 전에 破缺되었다. 머리 뒷면에는 頭光을 걸었던 突起가 있다.

이 三佛 如來像은 統一初期의 典型을 따르고 있어서 製作年代 推定에 別다른 問題가 없으나 兩菩薩像은 雕法이 洗鍊되고 뛰어난 作品으로 特別히 衣文과 璎珞帶、座臺의 蓮華文、얼굴의 表情、뒷면에서도 앞면과 같은 細密한 彫刻을 精誠것 다룬點等에서 三國時代末期樣式을 듬뿍 갖고 있으면서도 扶餘窺岩出土의 百濟菩薩像이나 三陽洞出土菩薩立像보다 더한 洗鍊度를 나타내고 있어서 造像年代 推定에 混亂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觀音菩薩立像은 얼굴과 璎珞 뒷면의 衣文處理에서 製作地 問題에 對한 慎重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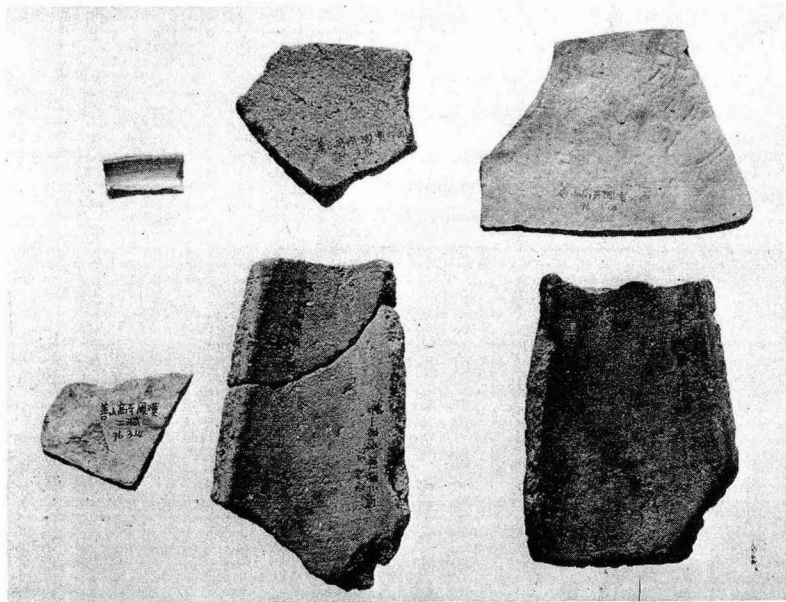
一九七六年 三月 一三일에 있었던 埋

藏文化財評價會議에서 以上の 諸問題에 對하여 相當한 討論이 있었고 아울러 造像年代에 對하여 優先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리고 있다.

金銅如來立像은 八世紀  
金銅觀音菩薩立像(附座臺)은 七世紀 中葉  
金銅觀音菩薩立像은 七世紀 初葉



佛像元出土地(傳接聖寺址?) 發見瓦·土器片(表面)



上圖의 瓦·土器片(裏面)

筆者는 이 方面 全히 問外漢으로 別意見을 갖고 있지 못하며 위會議 時의 結論과 發言內容을 參考로 하였는데 앞으로 이 三像에 對한 무게 있는 研究結果가 나오기를 期待할 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元出土地로 推定된 「대발골」의 寺地에서 發見된 瓦片과 土器片에 對하여 愚見을 加하여 보기로 한다.

여기서 發見 收拾한 瓦片은 거의 夫瓦片들이 大部分이고 瓦當은 하나도 얻지를 못 하였다. 瓦片은 대개 모래알이 많이 섞인 赤色系가 많고 黑色도 間惑 끼어 있는데 夫瓦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上寬下促形인 이른바 吐手蓋瓦이고 斷面이 「形을 이룬 것도 있는데 이런 形은 最近 雁鴨池에서도 發見된 일이 있고 또한 慶州附近 三國時代 寺址에서 흔히 發見된다. 그리고 表面에는 굵고 짙은 자리文이 있다. 亦是 三國時代末期<sup>⑨</sup>에 많이 있는 瓦片들이다.

土器片은 更質의 灰黑色土器가 많고 間惑 瓦質의 土器片도 있는데 慶州地方의 境遇 大略 六C~七C에 該當되는 古墳에서 多出하는 것들이다.

## 結

善山鳳漢二洞에서 偶然히 發見된 이들 三點의 佛像은 優先 그 크기에 서 小形金銅佛類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것들이며 또한 鍍金狀態도 두 점게 잘 되고 잘 남아 있으며 特別히 그 彫法이 至極히 優秀하고 洗鍊되었 으며, 全體의 均衡이나 部分的인 比例도 잘 調和된 佛像으로 金銅佛로는 가장 뛰어난 作品에 屬하는 것들이다. 이런 면에서 三國末 統一初期에 있어서의 佛彫刻史에 劃期가 새로 그려질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元出土地에는 瓦片이나 土器片으로 보아서 三國時代末期에 세워진 작은 庵子가 있었던 것 같으며 그 位置가 三七五m나 되는 頂上部에 가까운 高處에 位置하고 있다는 點에서——特別히 善山地方이 新羅佛敎의 一番地라는 點에서도——佛像과 함께 큰 注目을 받아야 할 것이다.

## 〈註〉

- ① 筆者는 佛像이 發見될 當時 暫時 國立慶州博物館長 署理로 勤務하고 있었다.
- ② 善山郡高牙面鳳漢二洞은 輿地圖書에 依하면 李朝後期 까지 善山府坪城面鳳漢洞이었다.
- ③ 國立建設研究所 一九七一年 二月 發行 六二八三號 「善山」地圖에 依함.
- ④ ① 新增東國輿地勝覽第一卷之二十九 善山
- ② 國史編纂委員會刊 「輿地圖書下」 韓國史料叢書第二十
- ③ 善山誌編纂委員會(金燦峰編輯) 「善山誌」 一九六五年 一月二〇日
- ⑤ 前掲 「輿地圖書下」 P. 四五二下左 壇廟條
- ⑥ 前掲 「輿地圖書下」 P. 四五五上 寺刹條
- ⑦ " " "
- ⑧ 金元龍 秦弘燮 崔淳雨 黃壽永委員과 鄭良謨 首席學藝研究官이 參席하였다.
- ⑨ 土器와 瓦片의 年代推定에는 秦弘燮敎授의 敎示를 參考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고고과장)